

'기억의 바람',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공감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展...내달 25일까지 은암미술관

10년 전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배에 탄 대다수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이었다.

모두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299명이라는 사망자, 그리고 5명의 실종자가 나왔다. 참사를 접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대형 참사가 단순히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은암미술관이 다음달 25일까지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는 전시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

이해 학생, 일반인 등 304명이 희생된 지난 참사로 고통받은 유가족과 그 주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 참여한 김봉규·김병택·박정용·박철우·정영창 5명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다면적인 시각으로 세월호 참사를 풀어내며 애도의 과정을 함

께한다.

회화 10점, 설치 1점, 영상 1점, 사진 34점 및 전시연계 퍼포먼스 등 작가들의 고민과 호흡이 담긴 50여점 작품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대형 참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김봉규 작가는 35년 차 한겨레신문 편집국 사진부 선임기자다.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선체 인양까지 3년간 팽목항에 관심을 기울인 그의 사진에는 사건 기록과 전달을 넘어 이 시대 보통의 아버지로서 참담한 사건을 바라보는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이 묻어나온다.

김병택 작가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국가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며 '解冤 해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신작을 통해 희생자의 넋과 원혼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빈다.

박정용 작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못다 핀 꿈이 마치 꽃처럼 승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신작 '승화된 꽃'을 선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중등 교사로 그 누구보다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박철우 작가는 2년 전 겨울 방문한 진도 팽목항



김봉규 '2014년 4월16일 오후, 동거차도 앞바다 사고 현장'

에서 느낀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 '2014-그날'을 통해 고요한 바다 밑 침잠된 영혼을 닦고 닦아 불러온다. 떠나면 타국, 독일에서 세월호 소식을 접한 정영창 작가는 꾸준히 팽목항과 목포시항을 찾아 세월호의 흔적을 수집했다. 그는 '촛불' (2016) 등 사진과 회화 작업을 통해 상실 후 남아있는 사랑을 위로하고 슬픔에 공감한다. 정지용 은암미술관 학예실장은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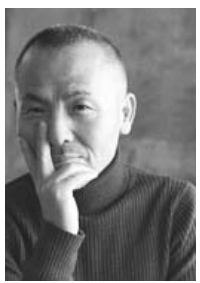
전 유명을 달리했던 망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천상의 세계에서 따스한 바람이 돼 자유롭게 지내길 기원한다"며 "이번 전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오픈식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이며, 부대행사로 김호준·김은숙 배우의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왼쪽부터 박철우작 '2014-그날', 정영창 '팽목항 6', 박정용작 '승화된 꽃'

짐노페디

가운뎃세대의 사색



짐노페디(Gymnopedie)는 에릭 사티(Erik Satie)가 1888년에 완성한 3곡으로 구성된 기악곡이다. 언제부터인가 비 오는 날이면 짐노페디를 허밍한다. 사실 이 음악은 굉장히 단조롭다. 전혀 화려하지도 않으며 클라이맥스도 없고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하지만 단음의 애조 띤 멜로디와 일정한 리듬의 반복이 단순한 듯하나 그것을 지배하는 '불협화음'이 나의 마음을 뒤흔든다. 마음 속에 흐르는 선율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바꾼다. 새벽에 듣는 짐노페디는 우울한 꿈처럼 고풍하고, 오후 4시에 듣는 짐노페디는 슬프지만 명상적이다. 또 저녁에 듣는 짐노페디는 어딘가

느슨한 듯하면서 질긴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에 관한 감정을 음악으로 변환시켜 준다. 나의 회화로 말하자면 터치는 '감정의 촉수'며 색은 '마음의 혼불'로, 아슬아슬한 감정의 줄타기이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선율로 나의 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영향을 준 이 선율을 어떻게 색과 터치로 심플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종의 제스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체 드로잉에 가까운 지휘 퍼포먼스를 연상해 본다. 제스처는 '말 이외에 할 수 있는 제2의 언어'이자 몸짓 언어이다. 화가의 붓 터치는 명장의 지휘봉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작업하면서 듣는 음악이 나의 그림과 어떠한 관계 맺음으로 표출되는지 시각화한 것이다. 꽃을 그리기는 쉬워도 향기를 그리는 것은 어렵다. 음악은 듣기는 쉬워도 그 감정을 해석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는 더 어렵다. 보이는



'마음산책-흔적'

것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의 '핵심'을 이룬다.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움으로써 지워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마음산책'을 통해 색과 터치, 선율의 상관관계를 표현해 본다. 허밍의 여운이 붓 터치가 될 때, 짐노페디는 시·청각에 대한 다층적인 영감을 발화한다. <대인통에서 회화강연>

시대를 관통하는 삶을 노래하라

14회 오월창작가요제 창작곡, 내달 1-17일 접수

시대를 담고 자유와 삶을 노래하는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또다른 두근거림의 오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창작곡을 모집한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음악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기획된 오월창작가요제는 2010년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했으며, 어느덧 광주를 전국에 알리는 대표적인 음악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가요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총 17일간 창작곡을 접수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15개 팀을 선정한다. 이어 현장 경연으로 진행되는 2차 예선을 통해 최종 8개 팀(곡)이 5월25일 본선 무대에 오른다. 오월창작가요제는 오월의 정신을 담은 노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 편견을 거부

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자유와 저항, 진솔하고 개성 있는 삶과 사랑, 시대정신이 담긴 노래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CD나 온라인 음원으로 정식 발표된 적이 없고 저작권 등록이 돼있지 않은 순수 창작곡만 접수 가능하다. 총감독을 맡은 가수 류의남 씨는 "어렵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예술의 힘이 필요할 때다. 시대를 직시하고 삶을 노래하는 음악인들의 다양한 창작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대상 1천만원(1팀), 금상 5백만원(1팀), 은상 3백만원(1팀), 동상 2백만원(1팀), 장려상 1백만원(4팀) 등 총 2천4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